

# INVESTORS OF INSIGHT

우리 단체의 취지는 「경제주체로서 ‘개인’ 바로서기」입니다. 이것은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행위주체인 ‘개인’이 올바르게 서야 자신의 삶이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개시(改視)경제를 현실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시경제란 우리 삶속에 경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깨닫고 생활 속의 경제, 눈높이 경제를 추구하여 경제·정치·문화를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는 다양한 부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급변하는 경기상황 속에서 개인의 자산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에 수렴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자산관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현상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투자연구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주체로서 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발전시키고 대중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대중강좌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투자연구소 및 종합교육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개최하는 모든 것은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정목표달성을 위한

*‘Polaris’*

사단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062) 431 - 6339

<http://www.kjecc.or.kr>

## □ 11월 경제 동향

### 국내외 경제·사회 변동 심화

#### 미국의 경기부양, 중국의 통화긴축, 위기의 유로경제권

9월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상승은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시작되었다. 돈이 많이 풀리면 각종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양적완화는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정도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미국경기지표가 부정적으로 발표될 때 오히려 상승하는 특이한 현상도 나타났다. 결국 세계 각국의 비난을 감수하며 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양적완화가 결정되었고 내년 6월까지 매월 750억 달러씩 국채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재료가 노출된 주식시장과 금값은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강력한 긴축정책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11월 한 달 동안 중국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0.5%p씩 두 차례 인상했다. 현재 중국은 연평균소득의 100배가 넘는 부동산 가격거품과 식료품에서 시작된 전반적

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와 지급준비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으로 발생할 위안화 환율하락을 노린 투기자금을 억제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야하는 과제도 남아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정책변화는 즉각적으로 유가, 곡물, 광물 등의 가격과 중국증시의 급락을 불러왔고 국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타격을 걱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물가불안으로 인해 사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유로지역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를 투자자들이 기피하면서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다. 결국 아일랜드는 EU와 IMF의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여 은행구조조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이기 직전까지 국민과 언론에 구제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부정해왔다. 이런 모습은 아일랜드 국민들의 분노유발과 함께 과거 우리나라에서 보았던 행태

이기도 해 슝스한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일단 유로국가들은 이번 아일랜드 구제결정으로 한 숨 돌리는 듯 했으나 여전히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의 파급을 경계하고 있다.



국내 상황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 외에도 11일 옵션만기일에 발생한 도이치 창구의 1조2천억 매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도이치 창구의 대량 매도는 외국인 투기자금의 부정적인 면과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논의되었던 외국인 자금유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제제방안도 즉각 시행되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국내외 금융시장 전반에 혼란을 주었지만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을 키웠던 환율문제가 안정되었다는 판단과 4.1%까지 치솟은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올린 연2.5%로 결정했다. 그러나 향후 경기하강의 징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금리정상화를 해나가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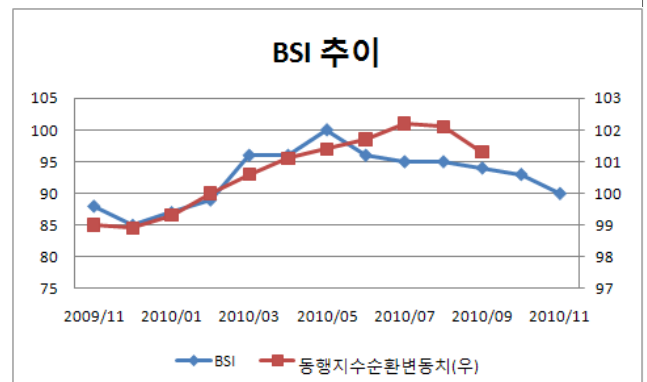
## □ 지표로 보는 한국 경제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하락세

#### 광주지역 BSI지수는 상승 이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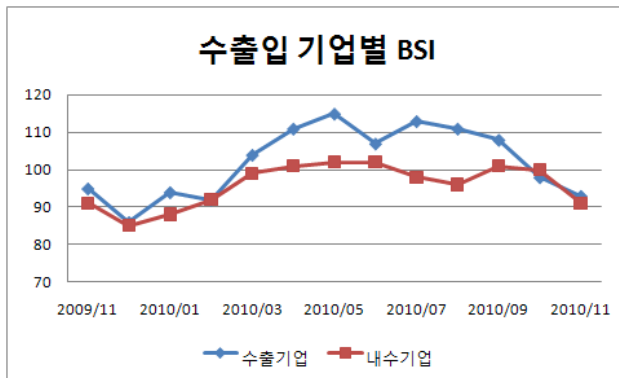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이나 예측을 지수화한 지표이다. 설문지를 통한 응답을 집계하여 지난달에 비해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에서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면 호전의 응답비율이 60%이고 악화의 응답비율이 40%이면 60에서 40을 뺀 20에 100을 더하면 BSI는 120이 된다. 다른 경기지표들과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심리적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BSI지수는 90으로 5월 이후 6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7월부터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하락 전환한 점과 비교해보면 BSI가 현재의 경기둔화를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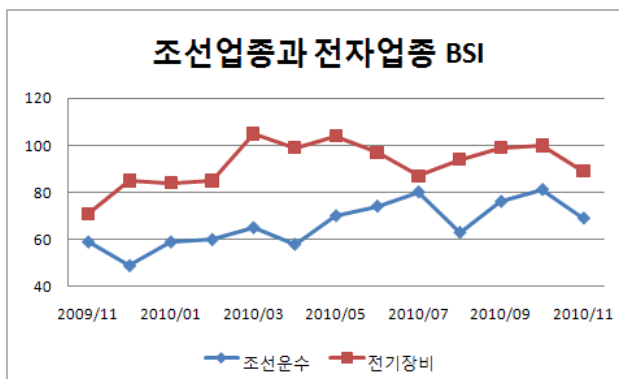


BSI지수는 여러 분야별로 나누어서 발표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수출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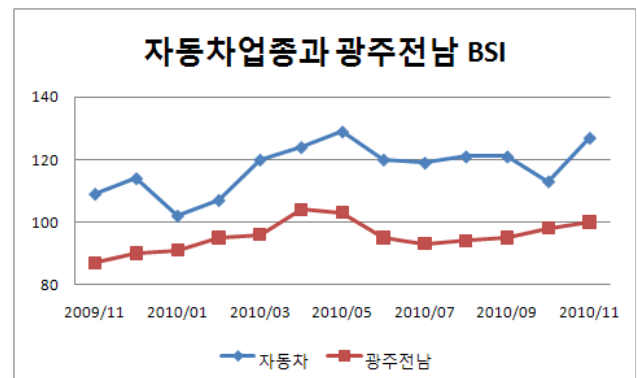
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부양책도 내수보다는 주로 수출기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그동안 수출기업의 업황이 상당히 좋았고, 이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며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져가고 선진국들의 경기도 둔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BSI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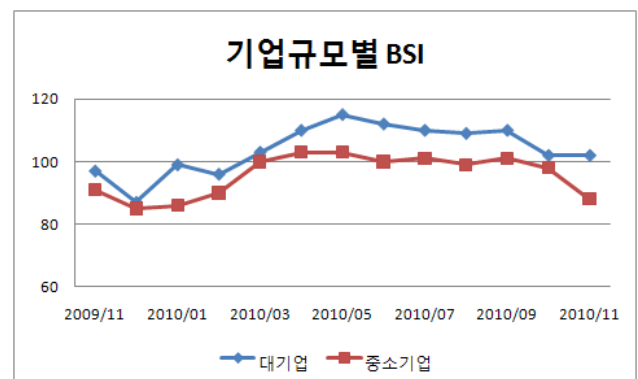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업종들의 BSI를 살펴보자.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조선업종은 BSI가 80이하로 여전히 좋지 않지만 과거보다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제품 등 대표적인 전자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빨리 회복했었으나 그만큼 업황의 둔화도 빠른 상황이다.



자동차 업종은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도 세계시장에서 경쟁자들을 제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이다. 아래의 자동차 업종 BSI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11월 127이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광주/전남지역의 BSI지수도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자동차 업종의 활황에 힘입은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별 BSI를 살펴보자. 앞서 경기부양책의 혜택이 수출기업 중심으로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과 같은 수출업종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BSI는 확실히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기업 간 상생을 위한 진지하고 공정한 제도 확립이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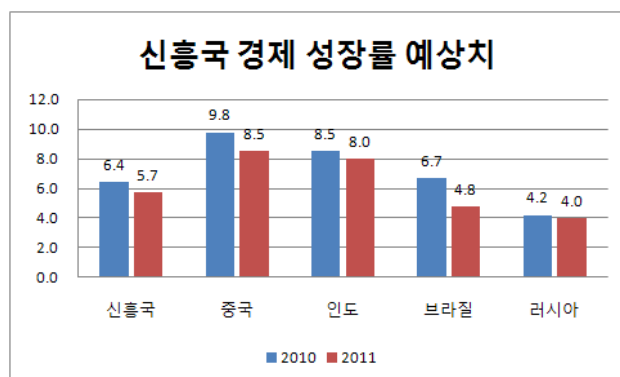


## □ 연말특집 - 2011년 경제 예측

2010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연말은 많은 경제기관들이 한 해 동안의 경제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내년 전망을 쏟아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호에서는 이들의 2011년 전망보고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살펴보고, 각종 경제이슈와 전망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 신흥국의 약진, 기대이상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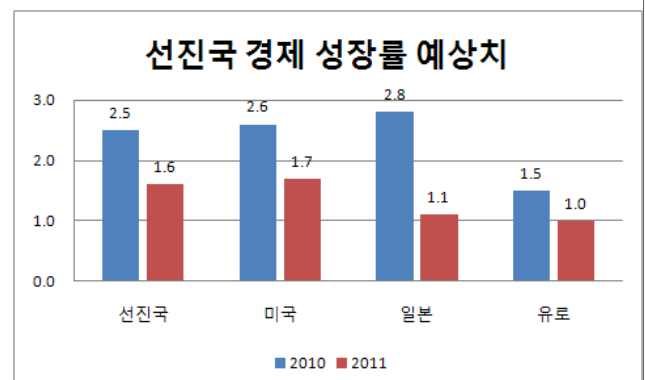
2010년은 세계 각국의 공조에 의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환율효과로 인한 수출부문에서의 선전으로 경제회복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 기저효과에 힘입은 점도 있지만 신흥국들은 올해 평균 6.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5%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BRICs 중에서 원유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저조한 성적을 보인 러시아를 제외한 중국, 인도, 브라질이 화려한 성장세를 보여줬다. 선진국에서 풀린 유동성이 이들 신흥국들로 흘러들어 갔고 물가상승과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들이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매우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위상이 상승하는 계기를 맞았다.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7.6%의 성장률을 보였다.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4.4%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 6%안팎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신흥국 최초로 G20의 의장국을 맡기도 했다.

### 더딘 회복에 발목 잡힌 선진국

지금까지는 선진국들 역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성장세를 높이며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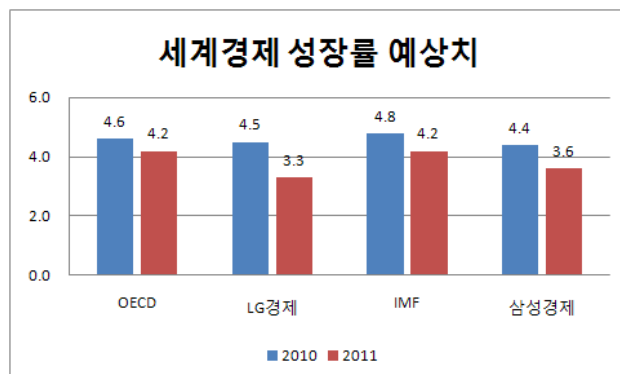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며 뚜렷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장세를 견인했던 경기부양책들이 종료되어 가기 때문이다. 그나마 부양책으로 풀린 돈들은 선진국 내 경제로 다 흡수되지 못하고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으로 빠져나갔다. 부진한 주택시장과 평균 8%가 넘는 실업률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들은 강도 높은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기존 고용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 결과 기

업들의 실적은 뛰어났으나 신규고용과 투자가 늘지 않는 점 역시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더블딥 우려와 2차 경기부양책, 유로지역의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재정문제, 일본의 디플레이션 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 2011년 예상 공통단어 '둔화'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있는 선진국 경제는 내년에도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선진국 정부들은 과도한 재정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유로지역의 경우 이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과정에 들어가 있다.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더 이상 경기부양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민간부문 역시 재정지출 축소와 경기부양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 정부를 대신해 경제를 주도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고용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 고용이 회복되지 못하면 소비도 살아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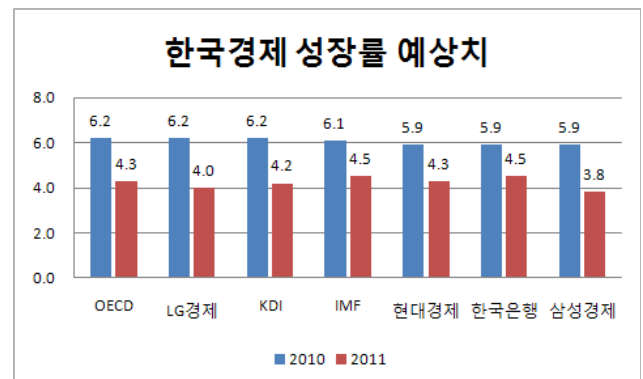


선진국들의 경기둔화는 세계교역량을 감소시켜 신흥국들의 수출 둔화로 이어진다. 이에 신흥국들은 수출 대신 내수를 기반

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려 할 것이나 당장 내년의 성장둔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국내 경제성장률은 크게 떨어질 전망

우리나라 역시 다른 신흥국들과 마찬가지로 선진국 경기둔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회복세를 이끌어왔던 IT와 자동차는 재고가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둔화와 환율하락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에서 민간소비는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둔화로 인한 충격을 충분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엔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에서도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우리 경제가 갈수록 세계경제에 대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외환시장의 안정과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한 필요가 있다. 또한 중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금리정상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 신중하고 세심한 정책 시행이 요구될 것이다.

## □ 경제 기사 풀어보기

### 성장 절반 중국에 의존 ... 커지는 '차이나 리스크' [한국경제 11월 22일]

한국 경제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 전자,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주력 산업분야의 '차이나 리스크(중국 경제의 급격한 변동 시 받는 타격)'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2일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총생산 증가율(4.2%) 가운데 대중 수출의 기여도가 2.2%포인트를 기록, 기여율이 52%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총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글로벌 위기 이전의 27%에서 31% 수준으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대중 수출 증가액이 총수출 증가액의 1.3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총수출 증가에서 대중 수출 기여율은 134%에 달했다고 KIET는 설명했다. 중국 이외의 지역은 수출 기여율이 되레 뒷걸음질했다는 얘기도.

일부 품목의 중국 시장 편중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합섬원료(83%), 석유화학 중간원료(73%), 디스플레이 제조장비(62%), 배터리(58%), 평판 디스플레이(55%) 등은 수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시장 수출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그만큼 커졌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LCD(액정표시장치), 전자, 자동차 등 일부 주력업종은 중국 시장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 '차이나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물가가 4%대로 치솟자 최근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하는 등 올 들어서만 벌써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율을 올렸다. 중국 정부는 무역 흑자폭 감축을 요구하는 미국 등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대폭 낮춰 제시,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열 경기의 급속한 둔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지역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는 9%대의 고성장을 해온 중국 경제로부터 이점을 얻어왔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과 중국 간의 영토분쟁이 희귀 자원 수출금지라는 조치로 결판이 났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일본은 본격적으로 '차이나-아웃(OUT)'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과 연관된 산업구조 그리고 무역의존도를 적절한 비율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차이나-아웃'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에만 치중했던 우리나라로서는 방향전환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게다가 식량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는 상당분의 식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물가상승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이는 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 □ 참~ 쉬운 경제 - 통화량(2)

### 중앙은행의 세 가지 통화조절 정책

지난 시간에 적절한 통화량 수준이 어떤 것인지와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현재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통화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지나친 저금리 정책과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팽창정책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사용되는 각종 통화정책의 바탕엔 우리가 신용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과거 세계경제는 보유하고 있는 금을 바탕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금본위제였습니다. 이 당시 화폐에 대한 신뢰는 화폐보유자가 언제든지 원한다면 화폐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했습니다. 실제로 35달러를 금 1온스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과의 무역에서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베트남과 전쟁을 하기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이 규칙을 어기고 과도하게 달러를 찍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게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본위제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현재의 신용화폐제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신용화폐란 말 그대로 경제주체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만약 현금 10억을 들고 조개껍데기를 화폐

로 사용하는 외딴 섬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선 한국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10억은 그저 종이뭉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신용화폐는 과거 금본위제와 달리 발행하는데 있어 금보유량이라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로 돈을 풀 수 있는 것도 신용화폐 제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에 맞지 않게 무작정 돈을 찍어낸다면 사람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되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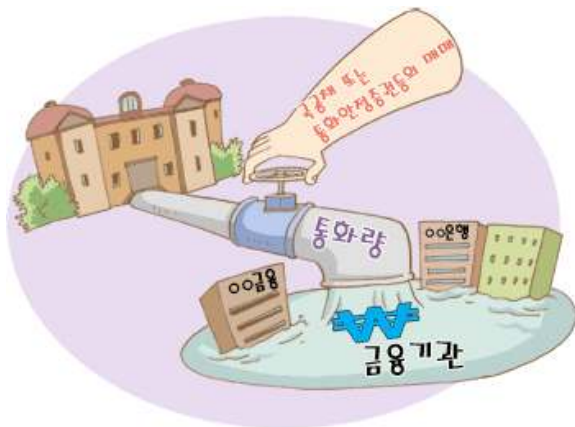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공개시장조작정책, 여수신정책, 지급준비정책이 있습니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을 금융시장에서 사거나 팔아 단기 시장금리(기준금리)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이 금



용시장에서 국공채를 팔면 금융기관은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만큼 시중의 돈이 한국은행으로 흡수됩니다. 이때는 채권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중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구입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되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채권가격은 상승하고 시중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1월 초에 결정된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정책은 FRB가 국공채 매입하고 새로 찍어낸 달러로 매입대금을 지급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공개시장조작정책은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재빨리 대응할 수 있고 효과도 빨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재정이 튼튼해야하고 간혹 해외자금의 대량유입과 같은 채권시장의 변동에 따라 정책의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도 희석되어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수신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다시 중앙은행이 할인·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재할인제라고도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재할인금리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의존하는 창구로서의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준비정책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하기 위해 일정량의 현금 즉, 지급준비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이 지급준비금을 총예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지급준비율입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은행에 현금이 묶이게 되고 시중에 공급되는 돈의 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은 그만큼 대출해줄 수 있는 예금이 늘어나 시중에 돈의 양을 늘리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 수단은 국가 전체의 통화량이나 은행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자주 사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같은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간편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한 통화조절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통화긴축정책을 펼치면서 주로 사용한 수단도 이 지급준비율 정책입니다.

- 다음호에서는 신용창출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금융생활 길잡이 - 신용(1)

### 신용이란 무엇?

신용이란 장래의 어떤 시점에 갚기로 하고 현금을 빌리거나 상품, 서비스를 구입하는 일종의 계약 행위입니다. 신용이란 말은 미국의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소비자 신용은 소비 행위를 할 때 돈 대신 신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나 판매업자가 돈을 빌려주거나 지불 시기를 연기해주고 대신 나중에 수수료나 이자를 덧붙여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빚'이란 말은 '신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신용'은 신용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빚'은 그 신용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신용'의 반대편엔 항상 '빚'이 있는 것입니다.

### 신용은 왜 필요?

신용은 당장 돈이 없더라도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앞당겨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능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나 대학진학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신용을 이용한다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현재의 생활수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신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한 후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할부제도를 이용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와 같은 공공요금, 각종 통신요금은 서비스를

먼저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 요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신용 행위입니다.

이런 신용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히 사용한다면 경제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만큼 지출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 신용도란?

국가나 기업, 개인의 신용이 좋고 나쁨은 그 주체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신용이 좋다'라는 것은 돈이 많거나 지불능력이 있다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불할 의지가 없다면 '신용이 나쁘다'라고 평가받게 됩니다. 게다가 금융제도가 발달하면서 신용에 대한 접근은 쉬워졌지만 그만큼 신용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인간관계에서와 같이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신용을 잃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신용도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으면 신용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도가 낮으면 신용한도가 낮고 높은 금리를 내야하거나 아예 신용사용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 □ 투자선행지수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가 커지고 중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더욱 강력한 통화긴축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 역시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 경기 역시 둔화되고 있는데 각종 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전망이 어둡다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까지와 같은 좋은 실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실력은 늘지 않았지만 유동성만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에는 한계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면서 보수적인 자산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변화된 시장구조로 인해 산업간 또는 기업규모간의 체감경기와 실적은 확

연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섹터 선택에 있어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투자선행지수는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의 연구원들이 오랜 기간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투자선행지수에는 국내 경기와 시중자금의 동향, 상장기업들의 실적 등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투자선행지수가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선행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막대그래프인 투자선행지수가 (-)에서 (+)로 전환되는 시점을 시장진입시점, 반대로 (+)에서 (-)로 전환되는 시점을 시장이탈시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산출된 투자선행지수는 올해 초 (-)로 전환된 후 -4.5를 가리키고 있어 적극적인 시장진입에는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